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송현지	소속(학부/과)	고분자공학과
파견 학기	2019 봄학기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Leonard de Vinci (EMLV 과정)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졸업을 하기 전에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또, 평소 외국문화에 관심이 많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현지에서 오래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 지원하게 되었다. 근처 나라들을 여행하기 쉽고 즐길 거리가 많은 프랑스 파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비자는 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 학기 시작 전에는 더 걸린다. 따라서 최소한 2~3달 전부터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도 출국날짜 며칠 전에 아슬아슬하게 비자를 받았다. 상대교에 신청준비를 하는 것은 기간이 되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메일을 항상 수시로 보아야 한다. 비자준비는 검색하면 자세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차례대로 하였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시험기간에 면접보러 서울을 왕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2번의 면접까지 마치면 프랑스에 가서 OFII(이민국 체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2019년부터 허가증이 이민국에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 따라서 메일로 pdf파일이 오면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행정처리가 매우매우 느리기로 유명하다. 서류는 빨리 접수하는 게 좋다.

항공권은 교환학생 합격통보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사기를 바란다. 스카이스캐너, 카약 등 유명한 항공사들도 있지만 isic홈페이지에서 파는 학생할인 항공권도 확인해보길 바란다.

다빈치대학은 따로 기숙사가 없고 학교근처에 student residence가 있고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소개해준다. 학교근처는 집값이 비싸므로 프랑스존(한인집거래 커뮤니티), student residence 사이트, 프랑스 부동산 사이트 등도 모두 보기를 추천한다. 외국인에게도 월 20만원(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정도의 월세 보조금을 주지만 신청접수, 받을 때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 본인은 두 번 다 프랑스존을 통해 알아보았다. 무조건 거주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는 집을 구해야 OFII도 프랑스 계좌도 열수 있다. 프랑스에서 집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이 걸린다. 미리 구하고 가면 좋지만 프랑스에 도착해서 집을 방문해보고 계약해도 된다. 집주인과 함께 쓰는 집은 정말 비추한다. 겨울엔 중앙난방이 되는 집을 추천한다. 수강신청은 이메일로 강의계획서와 설문조사 양식을 보내준다. 강의계획서들을 잘 보고 원하는 과목을 설문조사로 체크하면 신청된다. 강의수정기간에 과목을 바꿀수도 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은 파리근교 라데팡스 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특히 IIM, 공대는 현지에서 알아주는 좋은 대학교라고 한다. 건물 3개 정도가 이어져있다. 주변에는 파리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Les

Quatre temps가 있어서 장을 보거나 쇼핑하기 좋다. 학교 뒤에 슈퍼와 빵집이 있어서 저렴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다. 학교 뒤쪽에 스타벅스도 있다. 라 데팡스 쪽은 파리 시내보다 좀더 춥다. 그리고 큰 회사 건물이 많아 출 퇴근시간에 지하철역이 매우 복잡하다. 한국보다 여름, 겨울의 날씨가 덜 덥고 덜 추운 편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체감상 더 춥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나는 국제 비즈니스, 케이스 세미나, 경영, 마케팅, 세계문화, 자기소개서 쓰기, 불어 등의 수업을 들었다. 거의 모든 수업들은 중간고사가 없는 대신 발표, 과제가 많고 기말고사가 있다. 그리고 수업이 한 학기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마다 몇 주 동안 수업을 하고 마치고 그다음 수업이 생기는 시스템이다. 보통 4번 정도 수업을 하고 마친다. 시험을 못 쳐서 재시험 칠 성적이 나오면 증강하고도 학교에 와서 재시험을 보라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기억에 남았던 수업으로는 European Culture이 있는데 가끔씩 피카소 박물관이나 조형물 견학을 갔다. 그리고 Online Reputation 수업에서는 자신의 평판도를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써보았다. International Week에서는 각 자기나라의 음식을 들고 와서 함께 즐기는 수업이 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나는 프랑스존 사이트를 통해 집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집은 7호선 마지막 역 쪽 Ivry-sur-seine에 잡았다. 13구 근처였고 집값이 싼 편이다. 한 달에 1150유로였고 나는 룸메랑 반을 나누어 냈다. 두 번째 집은 파리 동쪽 근교 joinville-le-pont이었는데 한달에 1300유로 였고 이것 또한 룸메랑 같이 썼다. 프랑스는 보증금은 보통 한 달 치 월세로 낸다.

나는 거주증명이 되는 집을 늦게 구한 편이라 caf (월세 보조금)을 못받았는데 거주증명을 빨리받고 프랑스 계좌를 열면 caf를 받을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20만원정도 받는 것 같다.

프랑스계좌는 만들면 수수료가 안 드는 카드를 만들 수 있어 편리하지만 닫는 데만도 몇 달 걸린다고 한다.

프랑스는 교통티켓을 10회권 아니면 나비고(교통카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존 별로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으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티켓을 사야 한다. 나비고를 이용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다. 티켓은 자석에 닿으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가방을 앞으로 매야 한다. 동양인이 자주 타겟이 되기 때문에 현지인처럼 가방을 편하게 들고 다니면 안된다. 내가 아는 교환학생 친구들은 다 한 번씩 소매치기를 당했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는 문 쪽 자리는 피하고 등을 보이지 않고 수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고 소지품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학생증이 있으면 유적지나 미술관 등이 거의 다 할인되거나 무료이다. 그러나 가끔 isic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프잘사'라는 카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프랑스 여행 정보나 집 정보, 중고매매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Ldv에는 ESN이라는 교류학생 팀이 있다. 개강파티부터 중간중간 다른 대학교와의 연합파티, 보트파티 등을 열기는 하는데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 같다. 공항픽업 등을 제공하지만 금오공대처럼 팀을 이루어 놀러다니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우리학교에 교환학생 왔던 프랑스 학생들이 먼저 언어 교환을 하자고 제안해서 일주일에 한 번 언어교환을 하였다. 같이 레이저 게임도 하고 홈파티, kpop댄스공연 등을 보면서 한 학기동안 많은 경험, 교류를 하였다. 프랑스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쌓았지만 국제팀이 다른 학교와 연합해 주최하는 여행, 파티, 레이저 게임 등을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기타를 배우거나 운동을 할수 있는 동아리 공고가 올라오긴 했지만 나는 이용하지 않았다. 학교 지하에 체육관과 거울이 있는 연습실, 시청각실 등이 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이번 학기에 한국학생들이 매우 많이 와서 한국인들끼리 친한 경향이 있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모국어가 편해서 나라끼리 같이 다니는 편이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영어를 못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외국인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였다. 심지어 교수님보다 더 잘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위축이 되기도 하였다. 영어 회화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걸 추천한다.

프랑스는 타지역 사람이 처음에 정착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우리와는 식당문화, 에티켓, 언어, 도시 분위기, 치안 등이 매우 다르니 다 꼼꼼히 알아보고 가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매우 많고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는데 그 이유는 옛것을 보존하고 해를 가하지 않으려는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또한 파리에서 수학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운 에펠탑, 몽마르뜨를 자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여서 확실히 접근 용이한 즐길 거리들이 많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살아본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처음에 겨울에 도착했을 때 날씨도 자주 흐리고 도시의 전반적인 시스템(가게들이 빨리 문닫는 것 등)들이 매우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프랑스문화를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또, 교환학생을 오기 이전에는 한국을 위주로 생각했다면 갔다 온 뒤로는 세계의 관점으로 한국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할 정도로 공부하고 싶어졌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내가 그 학교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다. 지금이야 프잘사 카페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학교나 파리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다빈치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학교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학교사이트를 보라는 말이 전부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